

숲 정 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 28. 19).

삼위일체 대축일

제 1 독서 : 신명 4. 32-34. 39-40
제 2 독서 : 로마 8. 14-17
복 음 : 마태 28. 16-20

강론

“삼위일체의 신비”

나 궁 렬 신부 / 신태인 천주교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마태 28, 19).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 예절을 삼위일체적으로 정식화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2고린 13, 13). 바울로 사도가 신도들에게 보내는 전례적 성격을 지닌 인사말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전례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에 납득하기 힘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의문과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오늘의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겪은 것이며 교회는 이천년 동안 삼위일체의 신비로 인해 숱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초대 교회의 고백을 면면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신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신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위격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어서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 용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격과 위격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 인격 실존은 ‘안으로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격으로서도 자신 내에 존재하며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타인을 위한 존재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은 ‘안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에게로의 존재’입니다. 한계를 갖고 이기주의를 뜻하는 ‘안으로의 존재’를 벗어나 ‘에게로의 존재’ 즉 타인을 위한 존재가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사랑 자체인 그분의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위격의 존재 즉 타인을 위한 삶을 영위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

“자랑스런 우리의 젊은이들”

밝고 해맑으며 건강하다.

길거리나 학교 앞 일터에서 만나는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젊었을 적보다 훨씬 패기가 넘치고 스스럼이 없어 보인다. '위기나 재난에 직면해서도 능률한 모습을 보여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자긍심마저 갖게 해준다.

실제로 스포츠나 예술 기능 분야에서까지 세계 무대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졌다.

버릇이 없거나 가치관이 없거나 또는 도덕 관념이 없다고 나무라는 기성세대도 없지는 않으나 이같은 부정적 견해는 기원 전 기록에서도 옛보이는 편견일 따름이다.

오늘의 젊은이는 기성세대의 보수를 거부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구조적 모순이 많은 나라일수록 젊은 세대들의 진취적 기상은 오히려 더욱 북돋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책상머리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이상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비좁기만한 진학의 문,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꽃향기 넘치고 신록 또한 비단결 같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추보다 매운 최루탄가스를 마시며 도시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입장에 따라 저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이도 없지 않으나 지금은 왜 저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는 못배기나에 대해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때이다. **☐**

숲정이 산책



제6차 세계 젊은이의 날 교향 담화문 중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니다”(로마8, 15).

“자유의 순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1. 세계 젊은이의 날은 교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복음화 활동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해마다 여러분의 목상을 위하여 복음이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진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에 자양분을 주고 사도적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6차 세계 젊은이의 날 주제로서 저는 성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니다”(로마 8, 15).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소의 심오한 신비로 이끌어줍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로마 8, 14).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며, 성령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자녀들의 성령은 인류 역사의 추진력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덕과 진리와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남녀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2000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더욱더 커다란 연대 의식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열렬하게 추구하고 있는 세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3. 하느님 자녀들의 유산은 형제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만아들이신(로마 8, 29 참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 그가 누구이든간에 -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위대한 투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별과 증오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될 일치를 열망하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정의를 연대 의식이 넘치는 사회 건설의 위대한 과업을 떠맡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젊은이 여러분들입니다.

4.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갈라 5, 1). 그리스도의 해방은 모든 인간적 예속의 근원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입니다. 성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였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 받고 그것에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습니다”(로마 6, 17). 자유는 그러므로 은총이며 또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로마 8, 15).

외적인 자유, 정의로운 시민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는 중요하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인간 기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기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 희생과 유혈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귀한 자유이기는 하지만 외적인 자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갈라 5, 16 참조) 올바른 도덕적 양심으로 인도되어 참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느님 자녀들에게 속한 내적인 자유 안에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2고린 3, 17).

5. 1991년 세계 젊은이의 날의 핵심에는 또 하나의 세계 젊은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각 교구의 연례적인 회의와 행사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저의 조국 폴란드의 체스토코바 성모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모일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순례(1989)에 대한 제험을 상기하며, 1991년 8월 14일-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의 이 만남을 위해 기꺼이 물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전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하느님의 어머니의 발치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성모 마리아께서는 가장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에게 부여된 역할이 구원 역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6. 저는 이 담화로써 제6차 세계 젊은이의 날과 체스토코바의 순례, 이 모두를 위한 영적 준비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체스토코바의 ‘검은 성모’상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저는 성모님의 사랑의 보호에 제6차 세계 젊은이의 날의 모든 모임을 의탁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저의 어버이다운 따뜻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재천(안드레이)
정봉교(마카렐라)
효자동 오진아파트 앞
☎ 223-0297~8

축/ 개 점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생활용품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덕배(대표)

우리편투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조기리온)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앞)
☎ 85-8848

꿈나무 골든베어 효자점
새한 밴더 전주대리점

취급 품목 : 유아·아동복, 출산
준비물, 미니 자판기
이성기(세베리노)
정성욱(리드베노)
효자 테니스 코트 앞
T. 224-8929

잡 관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이 노래는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을 부른 김종률 씨의 곡이다 황석영 씨가 백기완 씨의 시를 참고로 가사를 붙인 노래이고 '81년 광주지역 연행예술 운동패 성원들이 '80년 광주 민주항쟁 때 도청에서 최후까지 버티다 숨진 윤상원 군과 '79년 겨울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기순(당시 전남대 3년) 양의 영혼 결혼식을 모델로 하여 광주 항쟁에서 숨진 남성 노동자와 여대생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든 '뉘폴이'라는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이다. '80년 5월 엄청난 죽음의 충격으로 패배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자들이여, 기운을 내어 뒤를 따르라'고 독려하는 두 영혼의 비장한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대학가나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외국에 널리 알려지고 국민학생이 따라 부르며, 서민들 사이에도 살아 불려지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4·19, 5·16, 10·26, 5·18, 6·29... 피로 얼룩진 우리의 현대사를 보면 나는 웬지 이 노래가 구천에 맴도는 원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고, 아직도 요원한 민주 평화 통일에 목마른 민중들의 함성이라는 생각이 버릴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런 슬픈 노래가 애창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교 구 소 식

※ 어머니들을 위한 영화 '베이비 붐' 상영: 5월 27일(월) 오후2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1,000원

1. 익산, 무진장, 김제, 정읍지역 분당 사목회 임원·공소회장 연수: 6월1일(토)-2일 천호 피정의 집, 출발-1일(토) 오후4시 가톨릭센터.
2. 태아생명 보호미사: 5월 27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별관 1층 소강당,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3. 전화번호 신설: 옥봉 성당 수녀원 471-3003.
4. 전화번호 변경: 송학동 성당 사무실 841-9713.
5.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5월 31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유종환(레지아 단장).
6. 성모의 기사회: 6월 1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6월2일 오전10시 성바로 서원 앞 출발(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6월2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 6월2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소성당(0652)212-3233.
성모승천 봉헌지수녀회: 6월2일 오후2시 본원(062)371-017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농촌4) 축사등의 오물처리가 잘되는지 살펴봅시다.

축사등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그대로 하천이나 땅 속에 스며들면 우물이나 식수원을 오염시킵니다. 오물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슈트화·아동화·특수화 총판매장(공정직영)

김문식(베드러)

☎ 82-3118

풍남문, 죽간, 송악로 사거리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멋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사거리)

전화·국변경·안내

백운전자

방송시설, 비디오촬영 전문

백정수(리노) 이순님(대리사)

전주시민약국 옆 ☎ 252-0231

요심이 (929) 김병오



† 호성동 성당 대배자화

1. 주관: 호성동 성당 사목회
2. 행사 목적: 신실 분당 공동체 일치와 바나나과의 유대 증진
3. 일시: 1991. 5. 24-5. 27 (4일간)
4. 사업 내용: 판매 사업, 경품권 발매 (₩2,000) 나눔 잔치
5. 경품 내용: 대상 1명: 액션 송풍차
특상 1명: 피아노 1대, 1명: 오디오 2대 3명: T.V. 3대 5명: 냉장고
행운상: 나중상: 각 100명
6. 경품 추첨일: 1991. 5. 27 15:00 (경찰 일차) 추첨 공고: 전복안보 (5. 28일자), 순질이, 호성 성당 게시판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시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064) 55-5151 (시도회 사무실)

양재·한복·흠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원

☎ 86-2715

발전기 임대 전문

*공사용, 비상용, 발전기

*용접 발전기, 판매, 임대

군산 이원기계

☎ 3-5072

라한출(도마)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호성동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 5월24일~27일 장소-인후동 성당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가정방문 : 28일 전9시-중노2가 3·8반 • 29일 전9시-중노2가5·7반 • 30일 전9시-중노2가6반 • 31일 전9시-금상동.
2. 사목회 상임위원회 : 6월2일 공식미사후.
3. 모임 : 빈첸시오-30일 전9시30분, 제대회-30일 전10시30분.
4. 금주청소 : 중노2가1·2반, 차주청소-중노2가3·5반.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1. 올드레아 :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마리아 꾸리아 : 오늘 오후2시.
3.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4. 축! 첫영성체 : 오늘 3시미사중.
5. 성모님의 밤 행사 : 31일(금) 오후7시30분.
6. 성가정회 : 6월1일(토) 오전11시.
7. 견진성사 : 6월1일 오후4시.
8. 분당성립 100주년 기념화보집 출판기념회 : 견진성사후(6월1일).
9. 신자 전화주소록 발간예정 : 변경된 전화나 주소는 사무실에 연락바람.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택

1. 가정방문 : 6월4일-다가동 4반, 6월5일-다가동 5반, 오후2시부
2. 회정당회 : 오늘 저녁미사후. 3. 제대회 : 30일(목) 오전10
: 30분. 4. 병자봉성체 : 31일(금) 오전10 : 30분 사무실에 신청
바람. 5. 올드레아 : 6월1일(토) 저녁미사후. 6. 사목회 : 6월2일
저녁미사후. 7. 대건회 : 6월2일 저녁미사후. 8. 사목회 : 6월2일
30일(목) 저녁7 : 30분 각 단체별 기도회와 화분봉헌 축하, 개인별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등 준비하시바랍니다. 성당청소(6월1일)
: 의덕의 가을Pr. 셋별Pr. 금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봉헌-
박종호, 장영애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봉헌-
원진희, 박영자 씨 부부.

1. M. B. W(그리스도 공동체 독사회) 수련회 : 27일~31일 후7시
참가비-2,000원. 이 기간동안 본당미사는 아침 6시에 있음.
2. L. M 성자순례(옥의행사) : 6월9일 장소-매른성지 접수-26
일 까지 참가비-5,000원. 전단원 및 뜻있는 신자 환영.
3. 첫 영성체 및 영세교리 시작 : 1일~15일, 후5시 3~6학년.
4. 환자 봉성체 : 30일 전9시30분, 환자를 모신 가정은 접수.
5. 어머니미사 시간 변경 : 매주 수요일 전11시로 9시30분 L. M.
6. 교적없는 교우와 쉬는교우 방문 : 28일-전5구역, 후6구역.
7. 회의 : 사목회-1일 저녁미사 후, 성가대-어머니미사 후.
8. 본당은 우리의 가정 교무금은 미루지 말고 봉헌합시다.

* 교도소새소자 체육대회 : 31일 10시 은인구함
구좌번호 국민은행 501-01-0454-480
우 체 국 402107-0057792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성모회 : 공식미사후. 2. 사목회 : 1일(토) 저녁미사후.
3.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후. 4.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매
월첫주).
5. 성모의 밤 : 29일(수) 저녁8 : 00 미사와 행사.
6.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 박시도 ② 정미순 봉헌-남창
덕·정영만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 양주태
② 이석남 봉헌-한동옥·황옥섭 씨 부부
7. 청소봉사 : 순교자의 모후.
8. 봉성체 : 28일(화).
9. 교적정리 : 비거주 신자는 교적을 옮겨 주세요.

1. 영세식 : 다음주 공식미사에 있습니다.
2. 사목회 지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 본당에 이사오시고, 이사를 가신가정
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4. 청소봉사 : 동정 마리아Pr.
5. 저녁시간 레지오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 사무실에 접수해 주심
시오. 6.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하여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대의 꽃 봉헌이 있기를 바랍니다).
7. 금주 전례 : 김옥희 독서·봉헌-이현희·한병갑.
차주 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김인실·조재승.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 (6월은 예수성심성월).
1. 회의 : 꾸리아-오늘 오후2시.
2. 알림 : ① 교무금 납부실적이 너무 부진하오니 미납되신 분들은
납부해주시고 미신청하신분 신입바랍니다. ② 주일미사-본당
내 모든신자는 주일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에
꼭 참례합시다(천주성계명중 3계명입니다). ③ 성당 모든 물건
은 우리모두의 것입니다. 내물건처럼 아껴쓰고 소중히 여겨
깨끗한 성전을 만듭시다.
3. 감사 : 성모의 밤 행사준비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축 삼위일체 대축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2. 축 어린이 영세 및 첫 영성체 : 6. 1(토) 오후 2시 영세식. 첫
영성체-오후3시 어린이 미사중. 3. 새 예비자(성탄반) 교
리시간 안내 : ① 일 9 : 30 ② 목(진) 10 : 30 ③ 금(후) 8시 6월
첫주부터 시작합니다. 4. 모임안내 : ① 꾸리아-수 10시 ② 인
내회-다음주 11시미사후 ③ 성모기사회-토 오전10시. 5. 성
모의 밤 행사 : 31일(금) 오후8시(오전10시 미사없음)(새벽미
사 있음). 6. 가정방문 : 개시관 참조. 7. 주일을 기록히 지남
시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사목회 : 공식미사후.
2. 레지오 머리에 단원성자 순례 : 28일(미리내-8시출발), 준비물-
회비 7,000원, 점심, 미사도구, 기도서.
3. 성모의 밤 행사 : 30일(목) 8시30분(봉헌초, 편지준비)(예비자
고리반은 금요일 오후8시).
4. 예비자 고리반 : 일요일 오전9시(6월2일 시작-천신자가 예비자
1분씩 꼭 인도합니다).
5. 다음주 헌혈합니다.
6. 청소봉사 : 효자마을.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나눔의 주일입니다.
2. 반석회-요센회 : 공식미사후. 3. 돌담회 : 오후6 : 00.
4. 가정방문 : 장수3(수), 장승2(목), 한신4(금)-오후2시.
5. 반미사 : 28일(토) 저녁8시 한신3, 29일(수) 한신4, 30일(목)
롯데2, 31일(금) 롯데3반.
6. 평일미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7. 패뽀수집합니다.
차주 모임 : 사목회, 꾸리아.
신축현금 총액 : 93,710,000원 봉헌액 : 1,252,130원
금주 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 교영표 ② 박춘화
기도① 이종권 ② 백숙명.
차주 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 김성택 ② 양미자
기도① 황인용 ② 박관자